



재난 상황에서

디지털 시민을 위한 미디어 이용 안내

모든 이들이 미디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요즘, 재난 상황에서 미디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미디어 이용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사협회(KATOM)는 재난 상황 속 미디어 이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반복적으로 재난과 관련된 뉴스 및 영상을 보는 것을 중단합니다.

이는 불안, 우울, 공포감을 비롯한 심리적 충격을 증대시킵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면 미디어를 끄고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2

비극적인 장면을 함부로 촬영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충격적인 영상이나 기사를 공유했다면 재생을 멈추고 해당 내용을 삭제합니다.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3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충격적인 장면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비극, 폭력, 사고 이미지를 접할 경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대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4

피해자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비극적 상황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되기 쉽습니다.
위로나 추모의 목적이더라도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5

소문, 거짓 정보, 추측성 보도, 모욕적인 메시지를 생산,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재난 당사자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6

특정 지역, 집단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혐오표현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혐오 메시지는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며, 사회적으로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합니다.

7

댓글을 반복하여 읽거나, 다른 이용자와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부정적 감정 때문에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8

디지털 시민의식은 공동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이웃을 위하는 일에 참여해 봅시다.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9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1577-0199, 생명의전화 ☎1588-9191]